

'94학술회의 秋季워크숍 대성황

생명공학분과, 美 워싱턴서 첫 海外개최 韓·美 저명 관계전문가 100여명 참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94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추계워크숍을 9월22일부터 24일,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씩 두차례에 걸쳐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한국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생명공학분과는 9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학술회의 사상 처음으로 첨단과학기술의 현장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성황리에 열린 데 이어 나머지 표면과학, 이동통신, 신소재, 축산학, 의과학 등 5개분과는 연세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서울대, 건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곳에서 각각 개최됐다.

특히 지난 9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미국의 워싱턴D.C에서 열린 생명공학분과워크숍에는 우리나라에서 成樂正 과총회장을 비롯 金殷永(KIST)원장, 蔡永福(화학연구소)연구위원, 李相變(서울대)교수, 韓文熙(유전공학연구소)연구위원, 宋鈺煥(과학기술처 생물화공연구소)장관 등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의 관계전문가 40여명과 미국에서는 MIT의 Arnold Demain박사를 비롯 이서구박사(NIH), 김성호교수(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조동협교수(코넬대), 유두영교수(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명공학 관련 전문가 1백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생명공학분과 워크숍은 「생명공학의 최근 발전동향」과 「생명공학 기술개발정책 및 계획」 등 2개세션으로 나뉘어 △신의약품 개발 △생명공학관련 면역학 △생명공학관련 신경생물학 △효소생물 공정기술 △재조합세포 발효기술 △생물질분리 정제기술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에 관련

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명공학 정책 및 계획수립관련문제 등 9개 주제별로 국내학자 10명과 외국전문가 15명이 각각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한국측 참가자들은 미국립보건연구원(NIH)를 비롯 Genetech, Genzyme 등 워싱턴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5개 지역의 최첨단 연구소를 견학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개발 현장에서 연구동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편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표면과학분과 등 각 분과별로 연세대 등 5곳에서 열린 5개분과 워크숍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고급두뇌들을 초청해 국내 관련전문가들과 국제 특정연구과제와 연계된 첨단산업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오크라호마 주립대 Clarkson교수를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지에서 관련전문가 18명과 국내학자 40명이 최신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첨단정보를 교환했다.

在日科技協 학술회의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金鉉佑)는 10월8일 일본의 동경한국학교에서 제8회 재일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李祥義 전과기처장관의 「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통합방안」에 관한 특별강연과 陳政一 고려대 교수와 대판대 金裕哲 교수 등 4명의 강연이 있었다.



◇과총이 정부의 국제화·세계화방침에 부응하여 첨단과학기술의 현장인 미국에서 개최한 생명공학분과 워크숍에서 성낙정회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한민족 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美서 정기총회 차기회장에 成樂正과총회장 연임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협의체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는 지난 9월27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레디슨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을 비롯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독립국가연합 등 세계 14개국의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회장에 임기만료된 成樂正현의장(과총 회장)을 연임시키고 차기 부회장은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徐文源재미과협회장·吳榮錫 재구과련 및 재불과협회장·金鉉佑 재일과협회장·崔알렉세이 재CIS과련 및 재러시아공화국과협회장 등을 각각 선출했다.

또 李傑三 현간사장(과총 사무차장)을 연임시키고 감사에는 姜貴吉 재중과협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지난해 결성된 재호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金奎珍)의 정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과총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제도 개선방안과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및 남북과학기술협력과 통합방안 세미나 개최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협의회 회원 일동은 2천년대 복지사회건설과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국의 선진과학기술국 창조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4개항의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선언문도 채택하였다.

在英 과학기술자 협회 창립20주년 학술대회

지난 74년 11월1일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20주년을 맞이한 재영한국과학기술자협회(회장 辛雨承)는 지난 9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창립20주년 기념 과학기술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과기처, 과총 및 관련기관의 후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연구소 및 기업체의 협찬으로 열린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1977년)인 Nevill Mott경을 비롯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 趙成洛 산기협상임부회장의 초청특별강연과 기계·항공·조선분과, 생명과학분과 등 모두 6개 분과에서 66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은 「남북과학기술협력과 통합방안」, 趙成洛 산기협부회장은 「한국의 산업기술개발현황과 지원시책」에 대해서 강연했다. ST

제3차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총회
1994. 9. 25 ~ 27
미국 Washington D.C. Radisson Plaza Hotel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9월26일 미국의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장면

공 동 선 언 문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1994년 9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기간중 2000년대 복지사회 건설과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쳐 조국의 "선진과학기술국창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들은 "2000년대 선진과학기술국 창조"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외과학기술인으로서 최신헌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진흥이 국가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신헌기술정보제공과 연구협력 그리고 기술자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의 대외경쟁력 배양이 국력신장의 첩경임을 직시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능하고 우수한 해외고급과학두뇌 유치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동참함과 동시에 남북과학기술교류를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